

합평 정착 6년... 천연염색 작품실 꾸민 '꽃반지 끼고' 가수 은희씨

조선대 2009년도 입학사정관 연수

# “한국 감색바지 세계적 브랜드로 키울 것”



“제가 합평에 동지를 내리게 6년이 됐네요. 내 고향 제주도와 비슷하고 인심이 좋아 이곳에 터를 잡고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를 예쁘게 봐주시니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꽃반지 끼고” 노래로 대중 속에 널리 알려진 가수 은희(여·58)씨. 지금은 화가에 가까운 나이로 바닷가 근처인 합평군 손불면 산남리 교촌 마을에 폐교를 구입해 천연염색연구소, 디자인실, 작품실을 꾸며 공예장과 손불들이 목을 수 있는 활보방 등을 만들었다.

미국의 청바지에 맞서 천연염색을 이용한 한국의 감색 바지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다.

“전라도는 자연조건이 완벽해요. 주변 곳곳에 감나무가 많고 감물 염색에 영향을 주는 기온과 바닷바람 등이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은희씨는 지금은 패션디자이너로서 길을 걷고 있지만 본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 초까지 ‘꽃반지 끼고’, ‘사랑해’, ‘등대지기’ 등을 부르며 가요계를 주름잡은 가수 출신이다.

한창 인기를 끌던 그녀는 결혼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뉴욕주립대 패션학과에 입학, 의상디자이너와 메이크업 등 토털 패션디자이너를 배웠다. 이후 지난 1985년 귀국해 사업가와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03년 합평에 온 은희씨는 타 지역서 온 탓에 주변에서 굶지않은 시선도 있었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심해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때마다 은희씨는 먼타향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과 의지력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도 이해력이 부족한 점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묵은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 통하듯이 배울건 배우고 이해할 건 이해할수 있는 여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희씨가 만드는 천연염색을 이용한 옷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해외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전국에서 옷을 사러 오고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환경오염이 없고 자연 친화적 사업인데다 감나무와 원단, 장소만 제공되고 기술력과 마케팅만 뒷받침이 된다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은희씨는 “천연염색을 이용한 사업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한국적인 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수 있다라는 마음가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은희씨는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 갈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kwangju.co.kr



조선대학교 입학처는 최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 연수를 갖고 서류심사, 면접평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 고구마 캐고 가재도 잡고

관광공 호남권협력단, 소외계층 학생 농촌체험

여행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 자녀들이 방학중 신나는 농촌체험 학습 기회를 만끽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감포마을에서는 소외계층 어린이 80여명이 그동안 동경의 대상이었던 시골 생활을 체험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지역 내 상무초, 금부초, 주월초, 금호초, 월산초, 화정초, 백일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새끼 꼬기, 떡 만들기 등 농촌전통체험과 고구마 캐기, 천연 비누만들기, 냇가에서 가재잡기, 개벌에서 조개잡기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만끽했다.

지난 18일에도 3개 학교 41명이 무안 감포마을에서, 21일에는 4개 학교 40명이 순천 생대마을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호남권협력단(단장 김동원)이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을 안전한 국내 여행지로 유치해 지역의 관광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호호”스파클링 녹색나라 여행 캠페인의 일환이다.

문의는 한국관광공사 호남권협력단(062-371-1420~1)으로 하면 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비데 필요한 복지시설 전화 주세요”

**애플젠, 무료 신청 접수** “비데가 필요한 사회복지 시설은 전화해 주세요.”

비데 전문회사인 (주)애플젠(대표 송희영)은 최근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20~30만 원 상당의 애플비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밝혔다.

(주)애플젠 신진아과장은 “사회복지시설 비데 무료 설치는 회사 경영방침인 ‘이의 1% 사회환원 운동’의 일환”이라며 “올해에는 그동안 신청이 적었던 광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신청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주)애플젠은 지난 200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의 권익과 건강을 위해 전국에 매년 100대의 비데를 무료로 공급, 설치해 주고 있다. 문의 1577-716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전국 실용 글쓰기대회 광주서 열린다

다음달 12일 DJ 센터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글쓰기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광주지역본부는 다음달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전국 실용 글쓰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열리게 된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담당 교사의 추천서와 함께 참가 신청서를 인터넷(<http://cafe.naver.com/klata.cafe>)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학교별 추천인원은 최대 20명으로 제한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 이메일(shg@klata.or.kr)이나 팩스(062-681-3801),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9월7일 도착분까지만 받는다.

입상자들에게는 광주광역시장상과 광주시교육감상, 광주시의회의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오는 10월1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릴 ‘전국 글쓰기 대회’ 출전권이 주어지며 수상실적은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도 활용된다.

문의 062-652-3800

## DJ 요청에 무반주로 ‘목포의 눈물’ 불러

하춘화 가수 인생 50년 자전 에세이 펴내

“가수 인생 50년을 정리한 이 책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현 시대를 사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하춘화(54)가 가수 인생 50주년을 즈음해 에세이집 ‘아버지의 선물’(중앙북스)을 출간하고 26일 서울 서교동의 ‘더 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장소에서 그는 지금껏 발매한 LP와 CD의 재킷 사진, 트로피, 기사 스크랩, 리사이클 포스터 등 소장품 전시회도 동시에 개최했다.

1961년 6살의 나이에 데뷔 음반을 내놓은 하춘화는 48주년을 맞은 그는 “책에는 아버지가 내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등이 적혔다”며 “1960년대 사회적으로 대중문화를 폄하하던 시절, 아버지는 자식을 타고난 데로 키우는 게 교육이고 애국하는 길이라며 날 가수로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하춘화는 데뷔 음반을 낸 후 초등학교를 다니며 음반만 내고 활동은 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중3때 녹음한 ‘물새 한마리’가 크게 히트, 대학 졸업 후 활동 하려던 당초 계획이 어긋나고 고등학교 때부터 데미라디시피 활동했다.

48년간 2천500여 곡을 녹음한 그는 이날 한쪽 벽면에 빼곡히 전시한 1961~1993년 LP와 1991~2007년 CD



의 재킷 사진을 한 장씩 짚어가며 에피소드를 전했다.

6세 때 청색 뱀장어 차마를 입고 찍은 데뷔 음반, 15세 때 찍은 첫 히트곡 ‘물새 한마리’ 음반, 17세 때 한복을 입고 찍은 ‘잘했군 잘했어’ 음반, 남진, 나훈아 등 작곡가 박춘석 사단으로 불린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찍은 ‘박춘석 사단 20주년 기념 음반’은 눈에 띄었다.

이번 책에는 역대 대통령, 연예계 동료 선배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개돼 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으로 고(故)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

/연필뉴스

## 국제청 ‘UCC 공모전’ 지역학생 최다 수상

광주지방국제청 관내 학생들이 국제청이 마련한 ‘2009년 학생세금문제작품 및 UCC 공모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광주지방국제청은 지난 25일 공모전 입상자 발표 결과 광주청 관내 학생들이 국제청장상 60명중 13명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상인 국제청장상 금상은 전체 수상자 10명 가운데 4명이 광주청 관내 학생이었다.

<국제청장상>  
 ◇글짓기 ▲금상=여수여도초등 윤상혁 ▲은상=고창초교 이예슬 ▲동상=광주교대부설초등 김혜수, 영암여중 조현주, 동아여중 배가솔

◇포스터 ▲금상=순천금당중 손승현 ▲은상=보성화천초등 조서연, 송빛중 조민지, ▲동상=순천전자고 조운재

◇만화 ▲금상=일곡중 정지연, 화순고 정민식 ▲동상=순천금당중 김지연, 슬내고 박다솔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내방

▲김주열(전남개발공사 사장)씨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동창·동문회

▲광주동초교 43회 동창회=29일(토) 오후1시 총장로 금강 해물탕. 062-225-5289.

▲옥곡고등학교 32회 동창회(회장 최규필) 월례회=29일(토) 오후 7시 곡성 입면 삼화농원. 010-3203-4392.

▲광주상고 12회 동창회(회장 이재술) 8월 하계모임=30일(일) 낮 12시30분 증심사 버스종점 전복식당. 062-227-1449, 011-9440-0300.

▲강진 일구삼삼회(회장 윤봉현) 9월 정기총회=9월1일(화) 오후 6시30분 신광식당. 010-8629-5410.

### 종친회

▲창원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황양선)=9월4일(금) 오전 11시

농성동 신청.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만성질환관리·영양·우울증 및 스트레스·음주관리·흡연과 금연 강의=8월24일~12월31일. 대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일반 및 집중 관리 등록환자. 무안보건지소 2층 보건교육실. 062-410-8195.

▲풍수지리 시민무료 공개강좌=29일(토) 오후 2~6시 호남대 쌍촌 캠퍼스, 풍수지리 현년의 허와실, 영상강의 토의 등. 장악호지리풍수학회 011-629-72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년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전남해바라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

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 모집

▲전통주 과일주(와인) 제조부 수강생 모집=31일(월) 오전 10시~12시 조선대 평생교육원, 9월9일(수) 오전 10시~오후 7시 호남대 평생교육원. 010-4568-0700.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 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 복지센터(062-266-6321~2)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견강요법(오행식사, 기운동, 생활명상) 수강생 모집=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형제추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 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 부음

▲한남숙씨 별세 김홍중·남신·화자·영희·미향씨 모친상=발인 2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금씨 별세 김기선(광주과학기술원)·기홍(의사)·기중(신경대학교)·기현(우석대학교)·기원(군산중앙여고)·기정씨 모친상 이정아(조선대학교)·황지현·이수연·정사회(원광대학교)씨 시모상 노영수(군산중앙고)·이항구(의사)씨 빙모상=발인 2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양금씨 별세 장기연·귀발(농협중앙회 풍향동지점장)·고순·순덕·매실·점순·금옥(서현중학교 교

사)씨 모친상 김동원·정삼도·김창석·서성필(한국도로공사 팀장)씨 빙모상=발인 29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박정배씨 별세 종대·종주·천만·점수·종남·오남·금숙씨 부친상=발인 29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염정환씨 별세 창인·경인·현석씨 부친상=발인 29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전을순씨 별세 김도형·정금씨 모친상=발인 29일(토) 나라장례식장 402호실. 062-670-4442.

▲윤귀동씨 별세 외수·승자씨 부친상=발인 28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김기환씨 별세 만찬·동찬·찬정완·준완·선숙씨 부친상=발인 28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홍정애씨 별세 최재은·정민·정순·은옥씨 모친상=발인 28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춘동씨 별세 태항·가연씨 부친상=발인 28일(금) 나라장례식장 201호. 062-670-4444.

▲김영백씨 별세 승철·병철·은희·덕희씨 부친상=발인 28일(금) 나라장례식장 202호. 062-670-4444.

▲박성균씨 별세 재관·민구씨 부친상=발인 28일(금) 나라장례식장 특실. 062-670-4444.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선진국형 종합서비스 프리드

1566-4499

가업분할